

##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비속어 번역 양상과 격식성 변화

이가현\*

**Gahyun Lee (2022), Translation of Swearwords and Shift of Formality in the Korean Drama “Squid Game.”** *Korean cultural content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K-Contents” in Korea, have been drawing growing interest since a Korean drama titled “Squid Game” gained immense popularity across the world after its release by the OTT (over-the-top) media service provider Netflix in September 2021. Subsequently, the violent and sexually suggestive content of “Squid Game” became a subject of controversy. While the degree of acceptance toward its violent and sexually suggestive content differed from country to country, the level of verbal violence and sexual suggestiveness expressed in the characters’ lines also differed by language,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in the context of translation. This research paper compares the Korean script of “Squid Game” with its Japanese subtitles with a focus on the use of swearwords, as well as English subtitles to further identify significant differences, and analyzes how formality changes in line with the level of profanity. The outcome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 that both the Japanese and English translations showed a higher degree of formality than the original Korean script. However, the analysis of the actual translation of swearwords in each language revealed that differences in translation stemmed from the patterns of how such swearwords are used in practice in the culture associated with each langu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Drama,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e translation, Netflix, swearwords**

**주제어: 드라마, 시청각번역, 자막번역, 넷플릭스, 비속어**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수료생

# 1. 서론

2021년 9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K-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제공되는 93개 국가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10월 13일 기준 넷플릭스 콘텐츠 역대 최다 시청 가구 수를 기록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포함해 역대 최초 1억 가구 시청을 기록하며 각종 해외 시상식에서 비영어권 작품으로는 이례적인 수상 성적을 기록 중인 <오징어게임>은 2016년 맨부커상 수상작인 소설 <채식주의자>와 2020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 이어 새로운 K-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1)</sup>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참신하고 탄탄한 스토리, 한국 특유의 정서, 빈부격차라는 세계 공통의 주제,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개선된 수용도 등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비영어권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며 인기를 끌고, 이국적인 요소를 시청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번역의 역할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의 더빙판과 자막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어 외에 프랑스어·포르투갈어·태국어 등 13개국어로 더빙되었고, 31개국어로 자막이 제작되었다. <오징어게임>의 경우 시청자들 사이에서 한때 ‘더빙 대 자막’ 논쟁<sup>2)</sup>이 확산된 바 있으며, 많은 시청자들이 대사와 입모양의 립싱크를 고려해야 하는 번역상의 제약이 있는 더빙은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징어게임> 시청 시 자막판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비영어권 콘텐츠 시청 시 더빙을 선호하는 서구권에서는 이례적인 <오징어게임>의 자막에 대한 관심을 통해 알 수 있듯,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보편화로 비영어권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막 번역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영상물 심의 결과표<sup>3)</sup>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

1) “해외 시상식 휩쓴 ‘오징어 게임’, K-콘텐츠 불패 신화”, 스포츠투데이, 2022.03.14일자, <http://stoo.com/article.php?aid=78208292983>

2) “오징어게임이 다시 불붙인 ‘더빙 VS 자막’ 논쟁...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한국일보, 2021.10.09. 일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714100005955>

3) 영상물등급위원회(2021.08.23.), [https://www.knrb.or.kr/kor/CMS/TotalSearch/gradeResultView.do?mCode=MN132&site\\_code=&category\\_code=ORS&category\\_code2=AV&category\\_code3=&grade\\_name=&rcv\\_no=2272358&return\\_url=&searchKeyword=%EC%98%A4%EC%A7%95%EC%96%B4%EA%B2%8C%EC%9E%84](https://www.knrb.or.kr/kor/CMS/TotalSearch/gradeResultView.do?mCode=MN132&site_code=&category_code=ORS&category_code2=AV&category_code3=&grade_name=&rcv_no=2272358&return_url=&searchKeyword=%EC%98%A4%EC%A7%95%EC%96%B4%EA%B2%8C%EC%9E%84)

사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으며, 국내에서 18세 이상 관람가인 <오징어게임>은 내용의 폭력성 및 선정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교육 당국에서 모방 위험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로 그 수위가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폭력성과 선정성에 대한 인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대사로 나타나는 언어적 폭력성 및 선정성의 수위도 언어별로 상이한 만큼 번역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어의 경우 한국에 비해 욕설의 종류가 적고 강도가 높지 않아 폭력성이 높고 비속어 사용이 많은 <오징어게임>의 자막 번역 양상에 따라 격식성(formality)에도 변이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징어게임>의 비속어를 중심으로 한일 번역양상을 살펴 보고, 보다 유효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영어 자막의 번역양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비속어 번역에는 어떤 번역 전략이 사용되었는가?
- 2) 일본어와 영어 비속어 번역의 격식성에 어떤 변이가 나타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비속어의 분류 및 정의

#### 2.1.1. 한국어 비속어의 범주 및 강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비속어(卑俗語)는 ‘격이 낮고 속된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비어와 속어 등 격이 낮은 표현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된다. 한국어 비속어의 범주와 관련하여 명확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연구자마다 분류 및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은 비속어를 ‘비어’, ‘속어’, ‘욕설’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비어는 ‘점잖지 못하고 천한 말’,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며, 속어는

4) “‘이러다 애들 망치겠다’ 인기 폭발 오징어게임 ‘청불’인데 어린이도 몰래 시청…세계 각국 ‘골머리’”, 매일신문, 2021.10.15.일자, <https://news.imacil.com/page/view/2021101520344462127>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 그리고 욕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로 풀이된다.

비속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동언(1999)은 비속어를 좋지 못한 어감을 가졌거나 짐작지 못한 표현으로서, 상대방을 낮추는 의미를 가지고 조롱, 비난할 때 사용되는 비어와 통속성을 가지는 속어로 구분하고 있다. 장경희 외(2010)에서는 비속어를 비어와 속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비어는 ‘그 의미에 대상 자체가 지니는 비천한 속성 자질을 포함하고 있는 말’로, 욕설은 ‘공격성을 지닌 언어 표현’으로 정의하며 욕설의 유형을 ‘인칭 욕설’, ‘비인칭 욕설’, ‘강화 욕설’로 구분한다. 이선영(2015)에서도 비속어를 비어와 속어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 간주하며 비어는 대조되는 평어를 가지는 ‘어떤 대상을 낮추거나 낮잡거나 얕보는 말’로, 속어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어(普通語)에 대응되는 ‘통속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욕설은 대조되는 일반어가 없는 말로서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 또는 ‘화가 났을 때 혼자 감탄조로 하는 말’로 정의한다. 한미선(2012)은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말’인 금기어의 속성을 가진 비어와 속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금기 비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성, 신체 부위 및 배설물과 관련된 세 개의 금기 영역 어휘를 금기 비속어로 정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대체로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 욕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으로 간주되며, 비어는 비하의 특성, 속어는 통속성, 욕설은 모욕과 공격성을 가진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 비속어의 강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정 외(2003)에서 웹 게시판 유해 단어 사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10대에서 40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가중치를 포함한 비속어 평가치를 조사한 결과, 강도가 높은 비속어는 ‘좃나’, ‘씨발’, ‘열라’, ‘개새끼’, ‘아가리’, ‘지랄한다’, ‘재수없다’, ‘똥진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정선 외(2011)는 욕설·비속어의 강도에 따른 범주에서 강도를 강, 중, 약으로 구분하고 동물이나 성적인 형태소와 관련된 단어(개, 소, 씹, 좃, 쌍등)를 ‘강 비속어’로, -새끼, -탱이, -지랄, 잡, 병신, 미친, 염병 등과 결합하는 단어 또는 신체 각 부위를 새로운 어근 창조나 접사를 결합시켜 욕설·비속어로 표현하는 단어(대갈통, 대가리, 쌍관뎀기, 쪽 아가리, 주둥이, 배뎀기, 간뎀이, 목구녕)를 ‘중 비속어’로, -임마, 년, 놈, 기집애, 자식, 가시나 등과 결합하는 단어를 ‘약 비속어’로 분류했다. 김정선 외(2011)에서는 청소년의 비속어·욕설·은어·유행어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일정 빈도 이상의 비속어를 선별하여 국어교육 전공

자(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표현의 거친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강도5는 ‘씨발’, ‘개새끼’, 강도4는 ‘존나’, ‘병신’, ‘지랄’, 강도3은 ‘개-’, ‘미친’, 강도2는 ‘새끼’, 강도1은 ‘쪽팔리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1.2. 영어 비속어의 범주 및 강도

영어 비속어는 bad language, vulgar words, swearwords, taboo words 등으로 표현된다. Battistella(2005)는 비속어를 offensive language와 slang으로 구분했으며, offensive language는 어원을 기준으로 인종, 성별, 민족, 성 지향 등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경멸 표현인 epithets, 신성 모독 등 종교적 표현과 관련된 profanity, 성 또는 배설과 관련된 표현인 vulgarity/obscenity로 분류한다. 또한 Slang은 특정 집단 내에서 사용하는 유희적인 언어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며 친밀감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표현으로 정의한다. Moore(2012)는 비속어를 swearwords, slang, basic slang으로 구분했으며, swearwords는 감탄사나 강조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강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금기어 표현, slang은 비교적 수명이 짧고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 basic slang은 swearwords와 slang의 중간에 존재하는 어휘로 비교적 수명이 길고 금기어가 아닌 어휘를 포함하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국내 연구의 경우 박승혁(2007: 146-149)은 비어(상말)를 ‘듣는 이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 가능성이 높은 도발적인 말’로, 속어를 ‘특정 집단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통어(jargon), 구어(colloquialism), 방언(dialect), 비어 따위를 아우르는 말’로 정의하며 현실적으로 비어와 속어의 명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속어는 비어보다 거부감이나 불쾌감이 덜한 표현으로 간주했다.

한편, 영어 비속어의 강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Beers Fägersten(2007)은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nigger, cunt, motherfucker, fuck, bastard, bitch, asshole, dick, ass, shit’의 순으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했으며, Schippers(2014)에서는 두 개의 미국 예능 방송에서 사용된 비속어의 강도를 cunt, fuck, piss, cocksucker, motherfucker, piss, tilt의 순으로 제시했다. Dewaele(2015)에서는 미국 드라마에 나타난 비속어의 강도가 cunt, slut, fucking hell, bitch, prick, asshole, bastard, wanker, shit, loser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영국 4개 방송국에서 비속어 강도에 대해 동시 설문조사한 결과 ‘cunt, motherfucker, fuck, wanker, nigger, bastard, prick, bollocks, asshole, paki’(BBC word-list) 순서로 시청자들이 비속어의 강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지현 2020 재인용). 또한 2018년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트 및 미디어 웹사이트인 디지털 스파이는 영어권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비속어의 강도를 다음 <표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1. 전지현(2020)의 영어 비속어 강도와 예시

강도	예시
약함 (milder)	ass(arse), bloody, bugger, (holy)cow, crap, ginger, git, god, damn(goddamn), Jesus Christ, minger, sod-off
보통 (medium)	asshole(arsehole), balls, bint, bitch(son of a bitch), bollocks, shit(bullshit), fuck, munter, pissed(off), tits
강함 (strong)	bastard, beaver, beef curtains, bellend, bloodclaat, clunge, cock, dick(head), fanny, flaps, gash, knob, minge, prick, punani
매우 강함 (strongest)	cunt, fuck(-er, -ing), motherfucker(-ing)

### 2.1.3. 일본어 비속어의 범주 및 강도

일본어는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비속어의 종류가 많지 않은 언어이며 사용되는 비속어의 강도 역시 한국어나 영어에 비해 약한 표현이 많다. 일본어 비속어의 정의는 사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표적인 일본어 사전인 고지엔(広辞苑)에 의하면 대체로 비어는 ‘저속한 말 또는 상스러운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속어는 ‘격식 있는 자리에서 사용되지 않는 비속한 말’로 정의된다.

일본어 비속어와 관련해 星野(1989)는 “욕설은 단순히 어휘뿐만 아니라 문체상(특히 문말 표현)의 변화를 통해 감정의 차이를 나타낸다(王 외 2015 재인용)”고 주장하며 문체와 문형을 통한 욕설을 명령형, 부정문, 다어문(多語文), 명사종결, 특정 접두사를 붙인 동사명사, 특정 접미어(어미)로 분류했다. 또한, 星野(1971)는 영어 비어의 분류를 일본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조상(가족) 관련 표현, 종교 관련 표현, 신체 관련 표현, 배설물 관련 표현, 성(행위) 관련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다(王 외 2015 재인용). 김수진(2005)은 일본 속담에 등장하는 비속어의 종류를 크게 사람 관련 비속어와 신체 관련 비속어로 구분하고 사람 관련 비속어를 남녀 관련어, 행위 및 성품 관련어, 신분 관련어 세 가지로 세분화했다. 王 외(2015)는 일본과 중국의 젊은이들의 언어 사용을 조사한 연구에서 米川(1998)가 제시한 속어의 범주를 참고하여 비어를 ‘더러운 표현으로, 그 어휘 자체가 높거나 낮은 공격성이 있는 말’로 정의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일본어의 경우

공격성이 약하고 중립적인 표현, 지시어(이 녀석, 저 자식 등) 또는 사람의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성과 관련된 비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은(2018)은 온라인상의 일본어 욕설 형태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어 욕설 표현은 한정적인 단어를 이용해 다른 단어와 조합하거나 구, 절을 형성하여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바보·등신과 관련된 욕설’, ‘쓰레기·찌꺼기·대변과 관련된 욕설’, ‘외모 비하 욕설’, ‘특정 연령층과 관련된 욕설’, ‘호칭(2인칭/3인칭)과 관련된 욕설’, ‘형용사 욕설’, ‘죽음과 관련된 욕설’로 분류한 바 있다.

일본어 비속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일본어는 비속어, 특히 공격성이 강한 욕설의 기능을 가진 표현이 많지 않아 어휘만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부정적 표현과 문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격식성(formality)의 정의

한국어로 ‘격식(格式)’이란 ‘격에 맞는 일정한 방식’으로 정의되며, ‘격(格)’은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의미한다.<sup>5)</sup> 한국어의 격식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체로 격식성을 높임법이나 공식성, 격식체/비격식체와 관련된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격식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학자는 많지 않으며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송연석(2019)에 따르면 격식성을 다룬 선행연구에는 언어학 관점에서 표준적인 형식과 발음에 최대한 근접하려는 경향으로 설명하는 연구(Labov 1972), 인류학 관점에서 사회적 상황의 한 가지 측면으로 간주하는 연구(Irvine 1979), 번역학에서 나타나는 담화의 대인적 측면인 테너(tenor)와 관련된 개념으로 설명하는 연구(Hatim and Munday 2004) 등이 있으며, 격식성을 가장 명확히 정의한 학자는 하이리겐과 드웨일(Heylighen and Dewaele 1999: 1-2)로, 개념적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격식성을 표층 격식성과 심층 격식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표층 격식성이란 “관습이나 형식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심층 격식성은 “표현의 명확한 의미를 명시적으로 명료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가리키며 레지스터(register)나 화법(style)도 이 심층격식성에 좌우된다(송연석 2019: 120).

---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한편, 격식성과 가까운 개념으로 페넬로페 브라운(Penelope Brown)과 스티븐 레빈슨(Stephen Levinson)이 제시한 ‘공손성(politeness)’이 있는데 공손성은 상호 작용 속에서 타인의 체면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다(김순미 2010: 121). 격식성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번역학 분야에서 격식성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번역 연구와 관련해서 이지연(2007)은 격식성과 정중성의 관점에서 TV방송 뉴스의 영한번역에 대해 고찰했으며, 김순미(2010)는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번역본을 대상으로 영한 문학 번역에서 나타나는 격식성의 변이를 분석했다. 김혜영 외(2010)는 비교 코퍼스를 기반으로 불한 번역 문학 텍스트와 국어 창작 문학 텍스트의 구어체 및 문어체의 사용 양상을 격식성의 관점에서 비교했으며, 한미선(2012)은 영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의 금기 비속어 번역을 격식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통역 연구에서 송연석(2019)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을 분석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격식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격식성에 대한 개념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비속어 번역을 연구한 한미선(2012)은 선행연구의 주장을 바탕으로 격식은 상대적 위계를 갖고 있으며, 격식과 문체를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며 뉴마크(1988)와 클레어(1995)의 영어 어휘 격식과 김태엽(2007)의 연구와 김동연(2007)의 한국어 어휘 격식 분류를 바탕으로 5단계 어휘 격식 모델을 제시하고 금기 비속어의 격식 변화를 ‘상승’, ‘유지’, ‘하락’으로 분류한 바 있다. 비속어 번역의 경우 출발어의 어휘가 가진 감정의 강도를 적절한 도착어 표현으로 전달하여 문체 효과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이나 문화권에 따라 금기 비속어에 대한 수용성의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Baker 1994; Dewaele 2004; Harris et al. 2003; Javier 1989; Jay and Janschewitz 2008, 한미선 2012 재인용) 원문에서 의도한 인물의 특성이나 전체적인 맥락, 흐름과는 다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격식성을 레지스터(register)나 문체(style)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비속어 번역문의 강도에 따라 변이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번역 전략에 따라 격식성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2.3. 비속어 번역 연구

비속어는 격이 낮은 표현으로 여겨지는 만큼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금기시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TV, 영화 등 광범위한 영상 매체를 통해 접할 기회가 많고, 실생활에서는 어른에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하는 언어의 일부분이다. 비속어는 현실 세계의 축소판인 소설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개성을 부각 시키기에 적합한 언어 재료이며(한미선 2012: 278) 비어, 속어, 은어, 욕설은 그 사용에 있어 다양한 화용론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박명수(2018)에 따르면 비속어에는 해당 언어의 문화, 사회, 역사적 배경 등이 녹아있기 때문에 번역 시 해당 문화의 다양한 사회,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만 번역사들은 구체적인 지침보다는 일종의 관행이나 번역 상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번역 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비속어 번역은 도착 문화권의 수용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수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의 영상 매체 비속어 번역 관련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에 있어 부족한 실정이다.

비속어 번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비속어 번역 유형, 사례나 전략 분석(김가희 외 2013; 박명수 2018; 박성철 외 2017; 전지현 2020; 최진실 2016; 최진실 외 2017; 한미선 2011, 2012)과 비속어 번역에 대한 수용도 분석(박기성 외 2017; 전지현 외 2016; 전지현 외 2017; 전지현 2018, 2019)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속어의 격식성 관련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번역 전략 연구 중 한미선(2011, 2012)의 금기 비속어 번역 등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되는 비속어 번역 전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 3. 연구 방법

###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21년 9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

스(Netflix)를 통해 공개된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다. 해당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는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고 폭력성과 선정성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비속어 역시 드라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제시한 영화 등급 분류 관련 항목 7가지 중 언어와 관련된 기준은 ‘대사’이며, 저속어 사용과 욕설, 선정적인 내용 언급의 빈도와 강도의 측면에서 ‘대사’를 비속어로 한정할 수 있다(전지현 2020 재인용). 따라서 본고에서는 번역전략의 유표적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비속어에 대상을 한정하여 출현 빈도와 번역 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 3.2. 분석 기준

전지현(2020)은 2018년 영국의 미디어 웹사이트 디지털 스파이가 제시한 영어권 미디어 내 비속어 종류와 강도를 바탕으로 영미권 영화 DVD내 비속어 사용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전지현(2020)의 영어 비속어 강도 및 예시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비속어 강도를 참고하여 영어 비속어 범주를 분류하고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의 4단계로 나누어서 한국어와 일본어 비속어 강도를 분류했다. 특히 일본어 비속어의 경우 종류가 많지 않아 비속성 강도가 비슷한 표현이 서로 다른 강도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드라마의 문맥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표4>의 일본어 비속어 예시 중 ‘こいつ’와 ‘ヤツ’는 한국어로 ‘자식, 녀석, 놈’등으로 번역되는 비슷한 정도의 비속성을 가진 단어이나, 해당 드라마에서는 ‘こいつ’가 비교적 친근함을 내포한 인칭대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있었던 반면, ‘ヤツ’의 경우 적대심을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속성 강도를 다르게 분류했다. 마찬가지로 ‘(クソ)野郎’와 ‘クソッたれ’ 역시 비슷한 정도의 비속성을 가진 단어로 볼 수 있으나, ‘(クソ)野郎’가 문맥상 비속성이 강한 욕설의 번역어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속성 강도에 차등을 두어 분류했다. 또한, 전체 비속어 중 대조되는 일반어가 없는 말로서 ‘남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 또는 ‘화가 났을 때 혼자 감탄조로 하는 말’로 정의되는 욕설로 대상을 한정하고, 내용어(동사, 명사, 형용사 등) 뿐만 아니라 감정표현에 사용되는 ‘에이씨’, ‘씨발’ 등의 감탄사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켜 번역 전략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속어 강도 및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 영어 비속어 강도 및 예시

	강도	예시
1	약함 (milder)	ass(arse), crap, god, damn(goddamn), idiot, punk, dimwit, jerk, scumbag, freaking-, coward, hell
2	보통 (medium)	asshole(arsehole), balls, bitch, shit(bullshit), dumbass
3	강함 (strong)	bastard, dick(head), son of a bitch
4	매우 강함 (strongest)	fuck(-er, -ing)

표 3. 한국어 비속어 강도 및 예시

	강도	예시
1	약함 (milder)	씨, 아이씨, 이씨
2	보통 (medium)	자식, 놈, 년, 병신
3	강함 (strong)	(개)새끼, 존나(졸라), 좆 되다(좆 까)
4	매우 강함 (strongest)	씨발

표 4. 일본어 비속어 강도 및 예시

	강도	예시
1	약함 (milder)	バカ, クソ, チクショウ, こいつ
2	보통 (medium)	ヤツ, クソッタレ, クズ
3	강함 (strong)	(クソ)野郎
4	매우 강함 (strongest)	없음

## 4. 분석 결과

### 4.1. 변이 패턴의 유형과 사례

본고의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변이 패턴은 생략, 유지, 어조 약화, 다른 형식, 강화로 구분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각 패턴별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 (1) 생략

[ST]

- 해보라고 **씨발**

[TT1]

- 何だよ やってみろ

[TT2]

- Try me

#### (2) 유지

[ST]

- **아이씨**

[TT1]

- チクショウ

[TT2]

- damn it

#### (3) 어조 약화

[ST]

- 아 **씨발** 오늘은 맛탕이라도 주나?

[TT1]

- チクショウ 大学いもでも食べたい

[TT2]

- God damn it. Maybe they're giving us candied sweet potatoes today.

(4) 다른 형식

[ST]

- 어이, 쌍문동씨. 나 이 년이랑아직 얘기가 안 끝났는데

[TT1]

- 割り込まれては困る

[TT2]

- I wasn't done with this **bitch** (유지)

(5) 강화

[ST]

- 저게 진짜, 이씨

[TT1]

- ムカつく女め (다른 형식)

[TT2]

- That fucking...

(1)은 ST의 ‘씨발’이라는 욕설 표현이 번역되지 않고 생략된 사례이고, (2)는 ‘아이씨’라는 감탄사가 각각 일본어와 영어의 ‘제기랄, 젠장’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저속성이 유지된 사례이다. (3)은 원문에서 사용된 비속어 ‘씨발’의 저속성이 일본어와 영어 모두 번역문에서 ‘제기랄, 젠장’으로 번역되어 비속성이 약화되어 나타난 사례이며, 본 연구에서 어조 약화에는 비속어가 하위 개념으로 일반화된 사례가 포함된다. (4)는 원문의 비속어가 생략되면서 원문의 직접적인 의미를 번역한 것이 아닌 맥락을 고려한 표현으로 대체한 경우로, 두 언어 모두에서 나타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영어에서는 ‘년’에 해당하는 ‘bitch’로 번역되어 비속성이 유지된 반면, 일본어는 욕설 표현이 생략되고 ‘끼어들면 곤란하다’로 번역되어 비속성이 약화된 사례이다. (5)역시 영어와 일본어 모두 나타난 사례

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일본어의 경우 ‘짜증나는 여자같으니’로 번역되어 비속어가 생략되고 맥락을 고려한 다른 형식으로 번역된 반면, 영어의 경우 비속어 ‘이씨’가 ‘fucking’으로 번역되어 원문보다 번역문에서 비속성이 강화된 사례이다. 욕설 종류별 출현 횟수는 다음 <표5>와 같다.

표 5. 욕설 종류별 출현 횟수

욕설	출현 횟수
이씨	75
씨발	55
새끼	100
병신	10
자식	4
년	20
놈	47
좆	12
총 횟수	323

한국어 비속어의 경우 감탄사로 쓰이는 단일어 욕설 ‘씨발’이나 ‘놈’, ‘년’과 달리 ‘병신새끼’처럼 결합된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본고에서는 비속성을 띄는 최소한의 단위가 아닌 하나의 욕설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병신새끼’는 ‘병신’과 ‘새끼’를 각기 다른 비속어로 분류하지 않고 상위 개념인 ‘새끼’에 포함되는 욕설로 간주하였다. 언어별 번역패턴은 다음 표6, 7, 8과 같다.

## 4.2. 언어별 번역패턴

표 6. 언어별 번역패턴

언어		생략	유지	어조 약화	다른 형식	강화	전체
일본어	빈도	130	40	85	68	0	323
	백분율	40.2	12.3	26.3	21	0	100
영어	빈도	52	96	148	11	16	323
	백분율	16.1	29.7	45.8	3.4	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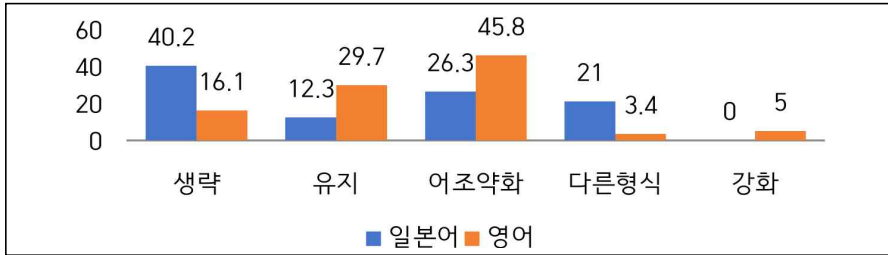


그림 1. 언어별 번역패턴

언어별 번역패턴 분석 결과 일본어의 경우 생략>어조약화>다른형식>유지>강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영어의 경우 어조약화>유지>생략>강화>다른형식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1. 일본어

표 7. 일본어 욕설 종류별 번역패턴

욕설		생략	유지	어조 약화	다른 형식	강화	전체
이씨	빈도	36	21	0	18	0	75
	백분율	48	28	0	24	0	23.2
씨발	빈도	29	0	12	14	0	55
	백분율	52.7	0	21.8	25.5	0	27
새끼	빈도	45	7	37	11	0	100
	백분율	45	7	37	11	0	31
병신	빈도	3	1	2	4	0	10
	백분율	30	10	20	40	0	3.1
자식	빈도	1	0	2	1	0	4
	백분율	25	0	50	25	0	1.2
년	빈도	7	0	7	6	0	20
	백분율	35	0	35	30	0	6.2
놈	빈도	7	11	19	10	0	47
	백분율	14.9	23.4	40.4	21.3	0	14.6
좆-	빈도	2	0	6	4	0	12
	백분율	16.66	0	50	33.3	0	3.7
전체	빈도	130	40	85	68	0	323
	백분율	40.2	12.3	26.3	21	0	100

일본어의 경우 번역문의 비속성이 더 높아지는 ‘강화’가 나타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원문의 비속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12.3%)도 영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강도가 높은 비속어의 종류가 많지 않은 일본어의 언어 특성상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욕설에서 생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40.2%), ‘이씨’, ‘놈’처럼 비속어의 강도가 높지 않거나 일본어에 등가어가 존재하는 경우 유지의 번역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본어 번역패턴 중 특징적인 것은 다른 형식(21%)으로 영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속성을 가진 어휘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부정적 표현과 문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일본어의 비속어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전체 번역패턴 중 어조 약화(26.3%)와 다른 형식(21%)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본어 비속어 번역 시 번역사는 원문의 비속성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번역패턴을 사용하여 번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4.2.2. 영어

표 8. 영어 욕설 종류별 번역패턴

욕설		생략	유지	어조 약화	다른 형식	강화	전체
이씨	빈도	36	27	2	5	5	75
	백분율	48	36	2.66	6.66	6.66	23.22
씨발	빈도	9	21	25	0	0	55
	백분율	16.36	38.18	45.45	0	0	27.02
새끼	빈도	5	25	57	5	8	100
	백분율	5	25	57	5	8	30.96
병신	빈도	1	6	2	0	1	10
	백분율	10	60	20	0	10	3.09
자식	빈도	0	0	3	0	1	4
	백분율	0	0	75	0	25	1.23
년	빈도	1	7	12	0	0	20
	백분율	5	35	60	0	0	6.19
놈	빈도	0	3	42	1	1	47
	백분율	0	6.38	89.36	2.12	2.12	14.55
좃	빈도	0	7	5	0	0	12
	백분율	0	58.33	41.66	0	0	3.71



	욕설	생략	유지	어조 약화	다른 형식	강화	전체
전체	빈도	52	96	148	11	16	323
	백분율	16.1	29.7	45.8	3.4	5	100

영어의 경우 일본어에 비해 생략(16.1%)과 다른형식(3.4%)의 비율은 현저하게 낮고 유지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는데(29.1%), 일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 가능한 비속어 종류가 많고 강도가 높은 비속어가 존재하는 영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씨’처럼 습관적으로 문말에 사용되는 욕설 표현의 경우 시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고 간결함이 중요한 자막 번역의 특성상 생략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48%).

한편, 영어 번역패턴 중 특징적인 것은 전체 번역패턴 중 어조약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인데(45.8%) 다음 두 가지 이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로 성행위와 관련된 욕설인 ‘씨발’과 동일한 수준의 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fuck-’의 경우 영어번역 시 ‘damn’, ‘shit’ 등으로 비속성이 약화되어 번역된 사례가 많이 나타났는데, ‘매우 강함’에 해당되는 욕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서는 ‘젠장’과 비슷한 의미에서 습관적으로 간투사 또는 감탄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영어의 ‘fuck-’ 역시 간투사처럼 자주 등장하는 비속어 표현이기는 하나, 한국어에서의 사용에 비해 거부감과 불쾌감이 강한 비속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번역 시 해당 문화권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번역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새끼’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대명사로 사용되거나 다른 욕설 표현과 결합해 강도가 강화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 번역 시 ‘he’, ‘guy’ 등으로 어조가 약화되어 일반화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 것이 어조약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3. 비속어 격식변화 양상

표 9. 언어별 비속어 격식변화 양상

언어		상승	유지	하락	전체
일본어	빈도	283	40	0	323
	백분율	87.6	12.4	0	100
영어	빈도	211	96	16	323
	백분율	65.3	29.7	5	100

상기 언어별 번역패턴을 기반으로 원문과 번역문의 비속어의 격식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언어별로 나타난 비속어 격식 변화 양상은 <표9>와 같다. 전체 번역패턴 중 원문과 번역문의 비속어의 속성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유지’의 경우 격식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지”로 분류하고, 원문보다 비속성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생략’, ‘어조 약화’, ‘다른 형식’은 격식이 높아진 “상승”, 원문보다 비속성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강화’는 격식이 하락한 경우로 “하락”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어와 영어 모두 격식 변화 비중이 상승>유지>하락으로 나타나 같은 패턴을 보였다. “상승”에 해당하는 번역패턴이 그 밖의 패턴에 비해 많았던 점이 두 언어 모두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율에 있어서 일본어에 비해 영어에서 “상승”의 비율이 줄고 “유지”의 비율이 증가한 점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언어별 비속어 사용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비속어를 대상으로 비속어 번역패턴과 격식 변화를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 일본어와 영어 모두에서 격식 변화 비중이 상승>유지>하락으로 나타나 원문에 비해 번역문의 격식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막 번역 시 구어를 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격식이 높은 언어를 선호하는 문어 규범을 준수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한 한미선(2012) 등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되는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언어별 비속어 번역패턴을 분석한 결과 일본어는 생략>어조약화>다른형식>유지>강화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영어는 어조약화>유지>생략>강화>다른형식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징적인 점으로 일본어의 경우 다른 형식의 비율이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비속성을 가진 어휘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부정적 표현과 문체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일본어의 비속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비속어의 종류가 많은 영어 번역에서 어조 약화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언어 사용에 있어 한국어의 경우 비교적 강도가 높은 비속어를 다른 언어에 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 편의 드라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 대상 비속어의 범위를 욕설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두 명의 번역사가 번역한 작업만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K-콘텐츠의 보급과 더불어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되는 아웃바운드 번역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분석 대상 수를 늘리고 보다 다양한 언어쌍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가희·박윤희. (2013). 「충실성의 딜레마: 금기비속어 fuck의 번역 양상 및 번역 수용에 관한 설문연구」. 『번역학연구』 14(4): 7-35.
- 김동언. (1999). 『국어비속어사전』. 서울: 프리미엄박스.
- 김수진. (2005). 「한일 양언어에 있어서의 속담대조연구-비속어 (卑俗語)를 중심으로 살펴본 차별양상」. 『일본어교육』 33: 97-114.
- 김순미. (2010). 「문학 번역에서의 격식성(formality)의 변화」. 『번역학연구』 11(1): 127-159.
- 김은정·조동욱·이성환. (2003). 「웹 게시판 유해 단어 현황,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제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2): 84-90.
- 김정선·이필영·김태경·이삼형·장경화·전문진. (2011).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 실태」. 『한국언어문학』 77.
- 김정선·윤영민. (2011). 「욕설로 대화하는 한국 영화: 한국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 나타난 폭력적 언어 분석」. 『한국언론학보』 55(5): 81-104.
- 김혜영·고여림·김지은·이영훈. (2010).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불한 번역 문학의 격식성 연구: 구어체와 문어체 사용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93-120.
- 박기성·최진실·하지현·전지현. (2017). 「비속어의 나뭇 평가에 대한 계량적 연구」. 『언어』 42(3): 401-415.
- 박명수. (2018). 「자막번역의 비속어 번역전략 분석: The Wolf of Wall Street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3): 81-112.
- 박성철·최경인. (2017). 「비속어의 번역전략 연구: 한독 영화자막 번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2): 27-51.
- 송연석. (2019). 「생방송 동시통역의 격식성 전략: 트럼프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2): 117-137.
- 이선영. (2015). 「비속어와 욕설의 개념에 대하여」. 『어문론집』 64: 59-80.
- 이지연. (2007). 「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63-282.
- 임시은. (2018). 「온라인상의 일본어 욕설의 형태와 댓글 관리 현황」.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161-169.
- 장경희. (2010). 「국어 욕설의 본질과 유형」. 『텍스트언어학』 29: 401-427.
- 전지현. (2018). 「영어 비속어에 대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인식 연구」. 『언어과학』 25(4): 111-136.
- 전지현. (2019). 「영어 비속어 연구: 맥락의 심각성 인식 및 비속어 사용」. 『언어과학』 26(1): 149-176.
- 전지현. (2020). 「영화 비속어 번역과 등급에 관한 연구: 영미권 영화 DVD 번역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27(3): 169-192.
- 전지현·이현정·김주현. (2016). 「L2 학습자들의 영어 욕설 사용 및 화용적 기능인식에 대한 연구」. 『언어과학』 23(3): 225-250.
- 전지현·최진실·박기성. (2017). 「영상매체 속 비속어 한영번역 양상 및 영어학습자들의 번역

- 수용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24(3): 65-87.
- 김은정·조동욱·이성환. (2003). 「웹 게시판 유해 단어 현황,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제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2): 84-90.
- 최진실. (2016). 「15세관람가 영미권 DVD의 나쁜 언어 (bad language) 자막번역 연구. 『통역과 번역』 18(1): 211-230.
- 최진실·박기성·전지현. (2017). 「청소년관람불가 선정적 언어의 자막번역에 관한 연구: 2010년대 영미권 DVD를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59(3): 177-202.
- 한미선. (2011). 「비속어의 영한번역 사례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281-303.
- 한미선. (2012). 「격식변화 측면에서의 금기 비속어 번역의 특징 연구: 영한 소설 번역과 자막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5): 277-306.
- Battistella, E. (2005). *Bad language: are some words better than others?*. Oxford University Press.
- Beers Fägersten, K. (2007). A sociolinguistic analysis of swear word offensiveness. *Saarland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 14-37.
- Dewaele, J. M. (2015). British ‘Bollocks’ versus American ‘Jerk’: Do native British English speakers swear more-or differently-compared to American English speakers?. *Applied Linguistics Review* 6(3): 309-339.
- Fälthammar Schippers, A. (2014). *Bad Language in Reality: A study of swear words, expletives and gender in reality television*. BA Thesis, Gothenborg University.
- Moore, R. L. (2012). On swearwords and slang. *American speech* 87(2): 170-189.
- 王, 丹丹. (2015). 日本と中国の若者の言語使用に見られる対人関係上の志向性:「卑語」,「ぼかし表現」,「アクセサリー化した方言」の使用実態を中心に. PhD dissertation, 九州大学.

[인터넷 자료]

- 스포츠투데이. (2022). 해외 시상식 휩쓴 ‘오징어 게임’, K-콘텐츠 불패 신화. <http://stoo.com/article.php?aid=78208292983> (2022.5.28.검색).
- 영상물등급위원회.(2021).[https://www.knrb.or.kr/kor/CMS/TotalSearch/gradeResultView.do?mCode=MN132&site\\_code=&category\\_code=ORS&category\\_code2=AV&category\\_code3=&grade\\_name=&rcv\\_no=2272358&return\\_url=&searchKeyword=%EC%98%A4%EC%A7%95%EC%96%B4%EA%B2%8C%EC%9E%84](https://www.knrb.or.kr/kor/CMS/TotalSearch/gradeResultView.do?mCode=MN132&site_code=&category_code=ORS&category_code2=AV&category_code3=&grade_name=&rcv_no=2272358&return_url=&searchKeyword=%EC%98%A4%EC%A7%95%EC%96%B4%EA%B2%8C%EC%9E%84) (2022.4.6.검색).
- 한국일보. (2021). 오징어게임이 다시 불붙인 ‘더빙 VS 자막’ 논쟁...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0714100005955> (2022.5.28.검색).
- 매일신문. (2021). “이러다 애들 망치겠다” 인기 폭발 오징어게임 ‘청불’인데 어린이도 몰래 시청...세계 각국 ‘꿀머리’.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01520344462127> (2022.5.28.검색).
- 디지털스파이.(2018). This is Ofcom's ranking of swear words in order of offensiveness. <https://www.digitalspy.com/tv/a809925/ofcom-swear-words-ranking-in-order-of-offensiveness/> (2022.4.10.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10 April 2022; revised on 10 June 2022; and accepted on 20 June 2022.

---

*Author's email address*

haku0510@hanmail.net

*About the author*

Gahyun Lee is a student who completed a doctoral coursework at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udiovisual translation and subtitle translation.